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에 대한 기악교사의 관점

신 연 서*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김 건 희

대구대학교 교수

이 해 균

대구대학교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기악교사들이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면담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S지역의 A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과 후 기악교사들이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기악교사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청음력이 우수하며, 들었던 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연주하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들은 덧붙여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이러한 음악성 즉, 우수한 청음력, 음악표현에 대한 강한 의욕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중복학생들이 가진 신체적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고 듣기를 통한 음악지도, 셈여림의 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지도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제어 : 시각중복장애학생, 음악성, 기악교사

* 제1저자, 교신저자(calmseays@naver.co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경험을 충족시켜주며, 의사 전달 및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친다(하수영, 1993). 그러므로 음악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의미있는 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음악은 소리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분야로 구체적인 매개체가 없어도 바로 인간에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이며 깊게 영향을 미치는 예술이다(송진범, 2000). 인간은 음악을 듣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므로 음악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음악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행위가 곧 음악성이다.

음악성이란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진 명확한 의미의 단어는 아니다. 음악적 재능은 특정한 음악적 능력인 음높이, 음길이, 템포, 강약, 리듬 등에 있어서의 세밀한 구별 능력만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고, 음악성은 미적인 표현능력이 포함된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한국음악용어연구소, 1992). 또한, 음악성은 후천적 훈련에 의해 리듬감각, 운동기능, 지적 요소들을 형성할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으로 이해되기도 하고(Mursell, 1927; Scheon, 1940), 음의 장단, 고저, 화음 등의 판별능력이나 시창력, 듣기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Lundin, 1967). 이흥수(1990)는 음악성이란 음악적 현상에 대한 식별력 및 음악적 상상력과 음악 행위의 능력, 음악적 통찰력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음악적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음악성에 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악성을 ‘음악적 활동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락, 리듬, 화음 등의 기본적인 음악적 성질을 이해하고, 음악적 이해와 청음을 통하여 음악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음악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음악성을 교육을 통하여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이 어떠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방법을 제공할 때 효과적으로 음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으며 음악성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Miller, 1989; 손성희, 2005; 손지희, 2006; 채민, 2009; Oliversacks, 2010).

먼저, Miller(1989)는 일부 학습장애학생들이 절대음감의 음악적 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절대음감은 음이 단독으로 주어졌을 때 다른 음정을 듣지 않고, 그 음만을 듣고 그 음의 음이름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음을 판별할 때, 상대적 판단은 용이하지만, 절대적 판단은 보다 어렵다(클래식 음악용어사전, 2002). 절대음감은 고유의 음높이를 아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일부 학습장애 학생들이 절대음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학습장애가 그들의 음악적 능력을 비롯한 다른 재능들과는 관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적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이들은 비록 박자감, 리듬감, 음정감이 확실하지 않고 악보를 이해하지 못 하는 면이 있으나, 타악기에 관심이 많고 진동이 큰 타악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채민, 2009).

시각장애인의 절대음감에 관한 연구가 있다(Oliversacks, 2010). 이들은 정안인들보다 음높이에 대한 변화의 속도를 열배나 빨리 감지하고, 정안인들보다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정안인 연주자가 절대음감을 지닌 경우는 10%에 지나지 않지만, 시각장애 연주자의 경우 60%가 절대음감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시각장애 연주자가 일반연주자와 달리 절대음감이 많은 이유는 선천적인 이유도 있지만, 암보(악보를 외어서 연주 하는 것)로 연주하는 습관을 통해 길러진 능력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손성희(2005)는 일반학생과 시각장애학생이 리듬과 가락을 인식하는 차이를 연구하여 시각장애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음의 변별과, 리듬인식에서 청음이 뛰어난 것을 보였다고 하였다. 시각장애학생은 대부분 음악을 좋아하고, 이들에게 음악을 듣는 것은 오랜 여가활동 중 하나라 할 수 있다고 한다(손지희, 2006).

위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습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 시각장애학생에게서 음악성을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교육과 음악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여민정, 2006). 임안수(2008)는 시각중복장애를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시각장애와 정신지체,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시각장애와 정서·행동장애, 시각장애와 의사소통장애, 시각장애와 학습장애, 시각장애와 건강장애 등”으로 설명하면서, 시각중복장애를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가 동반한 경우로써 설명하고 있다. 최근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과 관련된 논문은 Ockelford(2008)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소리에 대한 반응과 절대음감, 선호하는 음악, 작곡능력 등의 음악적 집중과 재능을 연구하여 이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음악치료의 관점에서 일부 연구만 진행되었다(김호형, 2002; 여민정, 2006).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측정도구들은 정안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시각장애인 이라도 지적인 문제가 없을 때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과 동시에 지적으로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을 알아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Ockelford, 2010).

Ockelford(2008)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경우, 청각적인 능력이 발달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면 많은 음악적 성장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한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을 연구하여,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소리탐색, 악기연주, 청음, 작곡 등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인다고 하였다(Ockelford, 2010). 이 규옥(2012)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청지각 능력과 음악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발로 복도바닥을 쳐서 울리는 소리를 통해 음악실이나 교실을 찾아오거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며 탐색하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피아노나 실로폰 등을 두드려서 음을 찾아내어 간단한 노래도 연주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과 관련한 연구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활동을 지도한 기악교사들로부터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의 어떠한 부분들을 발견하였고 음악성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가진 음악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의 잠재적인 음악성취 능력을 밝혀 계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실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 기악교사들을 통해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경우, 음악성을 측정하는 도구들로는 그들 개인이 지닌 음악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음악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음악수업장면에서 음악활동 상황들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음악적 경험의 맥락 속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을 오랜 시간동안 가까이에서 지도한 경험이 있는 기악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석문주, 2007). 기악교사들이야 말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에 이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면담법을 활용한 질적분석을 하였다.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기악교사들의 경험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을 판단하고, 또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발견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하다(Creswell, 2010; Manen, 1990; McCracken, 1988). 기악교사들과의 면담에서 연구자는 기악교사들이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은 S지역에 있는 A시각장애인복지관이다. A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교육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 기관에는 시각장애학생, 시각중복장애학생, 일반학생들이 함께 연주하는 통합교육 형태의 합주단이 있고, 오랜기간 동안 이 합주단과 함께 학생위주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한 학생은 주 1회 이상 개별 음악 교육시간과 주 2시간 이상의 합주단 연습시간을 갖는데, 이 때 복지관에 있는 모든 기악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들과 함께 음악 활동에 참여한다. A시각장애인복지관의 기악교사들은 교육경력이 평균 4년 이상이고, 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예술고등학교와 음악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예술교육으로 특성화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대상	성별	연령	전공	학력	장애학생 지도 경력	교육 경력
박 교사	여	28	바이올린	학사	2	9
최 교사	여	24	작곡	학사	4	5
김 교사	여	45	피아노	학사	6	14
홍 교사	여	30	첼로	석사	5	8
이 교사	여	27	플룻	석사	4	8

2. 연구 절차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A시각장애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교육경험이 있는 기악교사 5명을 섭외하였다. 그리고 면담 1주일 전 연구 참여자들

과 전화통화로 방문일정을 정하였다. 섭외를 하면서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 된 면담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일정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연구자가 질문의 내용을 주고 면담 대상자의 답변에 따라 연구 내용과 관련된 다른 질문을 추가적으로 제시해 나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 연구자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형식의 면담법이다(이용숙, 2002).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시작하였고, 공감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면담 내용은 시각중복장애학생으로부터 어떠한 음악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음이나 리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음악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얻은 다음 전부 녹음했다. 면담 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면담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개별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30분 가량 이었다.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가 전사와 코딩과정을 거치면서 추가 질문이 필요하게 되면 전화나 재면담을 통해서 보충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자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면담을 마친 날부터 이틀이내에 면담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사한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 충분히 읽어 본 후, 개별 문장이나 문단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결정하고, 유사한 주제들을 가진 문장이나 문단을 범주화해나가면서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에 대한 기악교사의 관점을 살펴보았다.(김귀분 등, 2005).

또, 질적 연구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의 박사학위지자 2인과 함께 토의하였으며 범주화된 결과들도 함께 살펴보았다(김영천, 2006). 분석된 자료들의 내용을 크게 우수한 청음능력과 음악적 통찰력 그리고 음악적 표현에서의 어려움으로 범주화되었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지도했던 경험 있는 기악교사들이 시각중복장애 학생의 음악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면담을 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음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이해를 보였다고 대답했다.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은 음에 대한 탐색을 시작으로 음악적 흥미에서 표현까지 다양한 음악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에 관한 기악교사들의 생각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의 높은 청음 능력과 음악적 표현 욕구 그리고 음악성 증진을 위한 지원 부분이었다.

1. 높은 청음능력과 음악적 표현 욕구

1) 높은 청음능력

시각중복특수교육대상자가 기악교육 시 높은 청음능력(연주되고 있는 악곡의 리듬, 멜로디, 하모니를 듣고, 악보에 적거나 그대로 연주하는 것)을 보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진이는 음에 대한 기억력은 꽤 좋았어요, 바흐 미뉴에트 있잖아요, 딱 따라다라 딱 단단 (미뉴에트 음계와 리듬: 레솔라시도레솔솔) 이런 것도 [피아노로]해주면 다 기억하고 다 [피아노로]했어요.

(김 교사, 2011)

김 교사는 호진이가 리듬과 음정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음악점자를 배우기는 하지만 기악곡의 경우 많은 악상기호와, 악보의 복잡함 때문에 정확하게 음악점자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군다나 호진이의 경우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음악점자를 학습하기도 어려워서 청음에 의존하여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교육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장애정도의 영향이 아니라 음악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관찰해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청음은 이러한 음악성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합주단의 작곡을 맡고 있는 최 교사는 여러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평가하여 곡을 만들기 때문에 평소에 학생들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하며, 주로 피아노 반주를 하는

학생들을 교육한다. 최 교사도 선천적으로 복잡한 음을 가릴 수 있는 우수한 청음 실력을 가진 한 학생에 대해 말했다.

은혜 같은 경우에는 음악성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귀가 좋으면 확실히 유리한 이유가 '이거 쳐 봐' 하면 듣고 바로 [피아노로] 치니까, 근데 이거는 음 하나하나로 외우기보다는 화음 덩어리로 외워버리구요, 그 화음 안에서 블렌딩이라고 그러죠, 약간 어울리는 소리로 외우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치면서 '쳐봐' 하면 도솔도미 이게 아니라 이런 코드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딱 치는 거예요, 그게 음이 하나씩 틀려도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일단 귀가 좋으니까 그것도 귀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많이 듣고 막 쳐보는 거 같아요,
(최 교사, 2011)

최 교사는 생활연령 10세의 은혜의 음악성을 우수한 청음능력에서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은혜학생의 경우 매우 복잡한 화음으로 나열된 것을 감각으로 알고, 또한 그것을 열심히 궁리하여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음을 기억하여 치는 스캔적인 청음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구성으로 다른 감정을 전달하는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 내는 능력도 갖춘 것이다. 은혜 학생이 선천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최 교사의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이론적으로 외우는 건 확실히 아니구요, 예를 든다면 비비디바비디부(신데렐라 영화배경 음악의 타이틀)를 편곡을 했는데 저는 이 화성을 그냥 1, 4, 1도로 봤는데 은혜는 1도 디미니시(감화음) 1도로 연주했어요... 디미니시 코드가 되게 어려워요, 일반 작곡학도들도 어려워하는 그런데 바로 [피아노로] 치더라구요,

(최 교사, 2011)

최 교사가 음악성이 있다고 말한 은혜 학생의 경우 교육시간에 본인이 배우고 있는 장화음의 구조를 이해한 다음 그 화음의 성질을 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화음을 만들어내었다고 한다. 최 교사는 은혜 학생이 같은 코드 안에서 자유롭게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내고 화성을 이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학생이 창작하도록 자유로운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지, 악보에 있는 그대로를 교육하여 기본화성에 충실한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정도였다고 했다.

기악교사들이 주목한 은혜학생은 뇌병변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생활연령 10세의 시각중복장애학생이다. 교사들은 은혜학생이 연주를 할 때마다 음악적인 부분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홍 교사는 은혜 학생의 정확한 청음실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음악성이 뛰어난 은혜 학생에 대한 박 교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같은 작곡가 아니면 같은 시대에 나타나는 음악적인 특징 이런 거 있잖아, 바이올린 4권 (스즈키 바이올린 교재)에 비발디가 많이 나오니까 비발디를 내가 먼저 들려주면 은혜가 '바흐, 바흐,'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동시대 인지 알았지? 너무 놀랍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가 바흐 바이올린 파르티타 (partita, 몇 개의 소곡을 배열한 기악곡), 서열을 말한다 '쿠랑트(파르티타 안의 3/4박자 춤곡), 지그(파르티타 안의 3박자춤곡)' 혼잣말로.. 이거 바흐 연주 안해 본 사람은 진짜 모르잖아, 우리 초등학교때 이런거 몰랐잖아, 은혜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시대(period)를 안것같아...은혜는 워낙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것 같고...

(박 교사, 2011)

제시된 예에서 은혜 학생은 교사의 연주를 듣고, 비발디 곡이라고 설명한 한 후 비발디의 곡을 들려 주었을 때, 혼잣말로 동시대 작곡가인 바흐를 언급하며 바흐의 연주곡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당시의 춤 모음곡(suite)의 제목을 읊어 교사를 놀라게 하였다. 이는 단순히 음악사를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시대적 특징과 배경을 이해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은혜 학생의 경우 생활연령이 10세로 매우 낮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악곡의 시대별 특징(박자, 강세, 템포, 다이내믹, 음색, 피치 등)을 이해하고 있어, 이를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하여 교사들도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서양악곡의 경우 시대별 사조에 따라 박자, 강세, 템포, 다이내믹, 음색, 피치, 텍스처, 표현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시대에 따른 사회적 배경과 주요 작곡가들의 연주관습(performing practice)이 중요한데, 이것은 음표로만 제시되어 있는 악보 이외의 것으로 음악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시대사조별 음악적 특징을 안다는 것은 고등학생 이상의 전공자들이어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 학생에 관한 이야기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은 단순히 음악을 소리에 집중하여 판별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 구성에 연결되는 기타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악곡의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뛰어난 청음능력뿐 아니라 풀어진 계명을 화음으로 모아서 연주 할 줄 아는 보라에 대한 홍교사의 말이다.

음악에 대해서는, 소리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것 같아, 보라는 간식시간에 간식 안 주면 떼쓰잖아, 그런데 음악을 할 때 보면 다른 애 같아, 어느 정상아이 못지않게 치잖아,내가 기타를 못 치니까 화음을 풀어서 계명으로 화음을 읽어 주면 알아서 기타로 코드(화음)를 연주 하더라고,그런 능력을 타고 났구나 생각하지,

(홍 교사, 2012)

홍 교사는 보라는 생활연령은 23세이며 간식을 주지 않으면 짜증을 심하게 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연주하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했다. 또 보라의 청음을 선천적 재능이라고 말했다. 청음은 일반적으로 유전적 능력, 환경적 능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정안인의 경우 절대음감을 계발하거나 유지하려면 조기음악교육(8세 이전)이 필수적이다. 그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악교육을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해도 절대음감을 소유할 수 있다 (Oliversacks, 2010). 청음은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았을 때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기악교사들이 전해주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청음 능력은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음악성으로 간주되어진다. 보라의 경우도 유아기에 텔레비전에서 들은 음악을 피아노로 치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고 음악교육을 시킨 것으로 특별한 청음 발달을 위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2) 음악연주에 대한 열정

면담에 참여한 기악교사 박교사, 김교사, 홍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최 교사는 음악연주 시간을 기다리는 수진이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진이는 진짜 음악을 좋아해요, 5시에 합주면 맨날 4시에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이따 뵈요,' 맨날 전화오구요, 그래서 가끔은 지하철에서 시끄러우니깐 전화를 잘 못 받는데...
(최 교사, 2011)

최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인 수진이가 합주시작 전에 거의 항상 최 교사와 통화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수진이의 행동은 그가 합주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수진이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음악적 표현 욕구를 나타내는 음악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김교사, 박교사, 최교사, 홍교사는 면담에 참여한 기악교사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소리나 음에 대해 선호하거나 애착을 보이는 것에서 음악성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이 소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집중을 잘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김 교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식이는 음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 같아, 자기가 들은 멜로디를 그대로 피아노로 치는 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만한 악기, 아니 장난감은 없는 거 같아요, 치는 대로 바로 나오고 소리가, 음이 여러개니까요, 음이 많잖아요,

(김 교사, 2011)

피아노를 가르치는 김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인 정식이가 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소리에 대해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정식이가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칠 때 마다 변화하는 소리에 대해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을 들었다. 김 교사는 악기를 ‘장난감’ 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정식이가 피아노의 건반을 누를 때마다 즐거움을 느끼고, 여러 소리를 탐색하는 것을 보고 마치 피아노를 마치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비유한 것이다.

한편, 박 교사 역시 시각중복장애학생인 경민이가 음악을 구성하는 리듬을 듣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였다.

경민이는 리듬을 좋아하잖아, 내가 새로운 곡을 바이올린으로 켜주면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드럼 치는 것 같이 리듬을 막 만들어, 무릎을 치고 머리를 치고, 하하, 예를 들어 즐거운 농부같이 신나는 거를 연주하잖아? 그럼 리듬을 치는데 제법듣기가 좋대 되게 신기했어, 좀 나중에 엄마한테 드럼을[드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드럼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식으로 경민이는 리듬에 심취해있으니까 [무엇이든지]리듬으로 음악을 승화시키는 것 같아, 하하,

(박 교사, 2011)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박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인 경민이가 음정보다는 리듬을 선호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에 학생들은 대부분 선율(음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민이의 경우 연주곡 안에 숨어있는 리듬을 찾아 박 교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매칭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보였다. 여기에 덧붙여서, 박 교사는 경민이가 가락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리듬이 듣기도 좋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경민이에게 음악 안에서 가락으로부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러한 음악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민이의 경우 박교사가 음악을 들려주면 몸을 두드리거나 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유롭게 사용하는 몸을 통하여 들은 음악을 새롭게 구성하여 표현하는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기악교사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을 이야기 할 때에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소리의 탐색하는 것과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것에서도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을 보았다고 하였다. 석문

주(1996)는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는 음악을 듣고, 탐색하고 이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시각중복장애학생의 다양한 소리나 음에 대한 탐구는 음악교육에 있어 음악요소를 지각하고 형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음악교육을 통하여 음악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학생 민주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들어본 곡을 연주하고 싶어 하는 의욕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도 어디서 들어 본 것을 와서 [피아노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책가지고 오라고 해요, '책없어' 라고 대답하면 민주는 그럼 서점에서 사오자고 해요, 민주는 이제 저 책을 가져와요, 제가 무슨 곡인지 모르는데 그럼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어떤 때는 [그 곡을] 어머니가 아실 때가 있고 모르실 때가 있고, '뭐 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때는 박 선생님(바이올린 교사)한테 물어 볼 때도 있어요, 모르면 네이버로 어플 사용 할 때도 있고, 알고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악보 다운받거나 연습해가야 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민주 따라가기 힘들어요, 하하하,

(김 교사, 2011)

김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인 민주가 어디선가 들었던 음악에 집중하여 그것을 자신이 배우고 있는 피아노로 연주하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강하게 나타냈던 일을 이야기 하였다. 이것은 민주가 일상생활 중에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을 주의깊게 들어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본인이 연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김교사에게 악보를 구해오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일상생활 중의 음악적 자극을 기억하고, 이것을 직접 연주하려고 하는 정도까지의 적극적인 음악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가 음악적 표현을 지향하는 미적인 표현능력으로서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못지않게 민주를 지도하는 김 교사의 열정과 태도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 교사가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민주가 원하는 악보를 구해다 주려는 열정을 보이는 것은 민주가 어딘가에서 듣고 와서 치려고 하는 곡이 민주가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민주의 청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민주의 말을 듣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민주가 음악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을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면담 대상 교사들은 대부분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음악성에 있어서 독특한 음악적인 이해와 음악적 표현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다른 기악교사 김 교사는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주의 어려움은 있으나 연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승현이의 예를 들었다.

7살인 남자애가 새로 왔는데요, 승헌이, 듣는 건 다 [피아노로] 치는데요, 양손연주는 안 되요, 손이 작고 잘 안 움직여서요, 오른손은 하려구[피아노를 치려고]하고, 저번에는 월광(드뷔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안되니까 제 손을 끌고 와서 치라고 해요,

(김 교사, 2011)

김 교사는 7살의 승헌이를 예로 들면서 청음실력이 있으나 양손을 쓸 수 없는 신체적인 제한으로 반주와 멜로디를 할 수 없지만 완성된 연주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승헌이는 김 교사의 손을 건반으로 끌고 와서 치게 하여 본인의 한 손과 함께 쳐서 곡을 완성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승헌이의 행동은 음악성에 있어서 음악 표현에 대한 강한 열정 부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2. 음악성 증진을 위한 지원

본 연구에서 면담에 참여한 기악교사들은 오랜 기간동안 일반학생, 단순시각장애학생,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을 교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교육적 경험에 비추어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우수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가진 음악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덧붙여 이야기 했다.

박 교사와 김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음악성이 우수하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없어 기악교육 시 어려움을 느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리적인 면에서 자세가 중요하잖아, 자세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은혜랑 지금 진원이랑 진도가 거의 비슷한데 진원이는 자세가 좋은 편이야, 은혜는 수업시간에 몸이 힘들어서 쉬는 게 많지, 아무래도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스텝키4권 맨끝에 하는데 근데 그냥 막해(바이올린 자세를 유지 하지 않고, 활이 반듯이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내는 것), 잡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박 교사, 2011)

박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인 은혜와 단순 시각장애학생인 진원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두 학생이 음정과 리듬에 대한 악곡자체의 이해는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은혜의 경우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자세가 바르지 못해 악기로 표현하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현악기의 경우 연주자세가 소리와외의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제대로 된 연주를 하기 힘들다. 하지만 은혜의 경우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연주할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박 교사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은혜가 바이올린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박 교사의 이러한 고민은 은혜에게 신체적 지원이 포함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은혜가 가진 음악성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면담 참여자 대부분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우수한 음악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각중복장애학생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김 교사의 이야기이다. 김교사는 음악성이나 음악적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음악적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지금 고1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었나 봐요. 형근이는 처음에 오른손으로, 삐꾸기를 오른손으로만 칠 수 있을 때 왔어요, 처음에는 오른손만 가르쳤거든요, 어느날 제가 오른손만 하다가 왼손을 술만 반주를 넣어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걸 하더라고요.

(김 교사, 2011)

김 교사는 17세이고 지적장애를 수반한 시각중복장애학생 형근이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형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해오고 있으나 발전의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다. 김 교사는 처음에 형근이가 오른손으로만 피아노를 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왼손으로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것을 해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수업에서 음악성을 보여 줄 기회를 제공하였고, 곧 양손으로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학생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은 시각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정안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박 교사의 이야기이다. 박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소리를 들려주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이 이론부터 지도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음악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 애네는 특징이 이론부터 접근하기가 힘들잖아, 이론부터하기가 힘들어서 먼저 소리를 들려주고 그러면서 배우지, 멜로디랑 리듬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노래가 되는데 애는 신기한 게 들을 때는 리듬만 열심히 들어, 들으면서 책상치고, 머리치고 그런다,

(박 교사, 2011)

박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지적장애를 동반한 경우 음정과 리듬,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일반학생과 단순시각장애학생이 점자악보를 읽을 경우에는 악보상에 음정과 리듬이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악보를 보는 것으로 정확한 음정과 리듬을 표현할 수 있지만, 시각중복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청음에만 의지하여 음악을 익히기 때문에 이론에 의한 교육부터 시작하기 보다는 소리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면담한 기악교사들의 대부분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음악성이 우수하나 음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도되어야 할 부분도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김 교사와 홍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청음과 기악의 테크닉은 충분하나 음악의 셈여림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거는 배웠으니까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하다보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걸 다 치긴 쳐요, 그런데 감정이입은 안돼요, 현정이가 그렇잖아요, 감정이입 안 되잖아요, 하긴 하는데...

현정이 때도 그렇고 민규도 그렇고 감정이입을 좀 시켜줄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안돼요, 순전히 포르테(f, 세게 연주하라는 말), 피아노(p, 여리게 연주하라는 말)를 가르쳐준 그날은 돼요, 그 다음에 오면 다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세야 돼, 이 부분은 여리고 하기로 했지'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해요, 그 다음날에는 또 안돼요,

(김 교사, 2011)

김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 현정기와 민규는 연주에 있어 테크닉(리듬이나 음정을 정확히 치는 것)은 충분하지만, 음악을 표현하는 데 감정이입이 어렵다고 했다. 김 교사가 감정이입을 위한 기본적인 셈여림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었지만 두 학생은 다음날이 되면 다시 셈여림을 반영한 부드러운 선율이 아닌, 딱딱한 연주를 계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애들이 포르테, 피아노가 안돼,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만 되는 거야, 그래서 셈여림은 절대 안 되니까 음악이 그냥 소리만 내는 거?

(홍 교사, 2012)

홍 교사도 김 교사와 동일하게 시각중복장애학생들 중 일부학생들은 음악표현에 있어서 셈여림 표현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음악을 구성하는 것은 정확한 리듬, 화성, 멜로디이다. 그러나 시각중복장애학생의 경우 프레이징(악상을 자연스럽게 분할해서 정리하는 것)과 아티큘레이션(연속되고 있는 선율을 보다 작은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위에 어떤 형과 의미를 부여하는 연주기법)에서 어려움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뛰어난 테크닉의 기계적인 연주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셈여림을 연주에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보다 완성된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기악교육 수업을 실시하였던 경험을 가진 기악교사들이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기악교사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을 교육하면서 이들에게 뛰어난 청음력, 소리를 듣고 연주하는 능력, 리듬을 듣고 연주하는 능력과 같은 음악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는 손성희(2005)의 연구에서 밝힌 시각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보다 뛰어난 음의 변별력과 리듬 인식력이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은 이러한 듣고 연주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고 음악의 구성 요소들의 특색을 잘 이해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Ockelford(2008)의 연구에서 밝힌 결과와도 유사하다. Ockelford(2008)는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시각장애 이외의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일상생활의 소리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우수한 청음력과 음악적 구조를 이해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악교사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을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기량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소리를 탐색하는 것과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하여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좀 더 나은 형태의 음악연주를 하고 싶어 하는 열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들었던 음악과 관련된 악보를 원한다든지, 신체적 조건 때문에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칠 수 있을 때는 교사가 반주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모한다든지 하여 좀 더 나은 형태의 음악연주를 하려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은 청음뿐만 아니라 맥락적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음악적 통찰력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음악의 구성요소인 리듬, 가락, 화성 빠르기, 셈여림, 음색, 형식 등의 음악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홍수, 1992). 이러한 개념의 형성이 가능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특성에 맞는 음악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음악성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음악성 계발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면담을 한 기악교사들은 지도하였던 시각중복장애학생들로부터 뛰어난 청음력과 듣는 것을 통한 음악적 이해력 그리고 음악적 표현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들에게 더욱 발전된 형태의 음악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우수한 청음력을 활용한다면, 기악교육방법 중 스즈키 메소드(청음을 사용하여 먼저 기악연주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를 생각할 수 있다. 스즈키

메소드는 어린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교사의 연주나 녹음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듣고 기억하여 소리를 모방하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허은혜, 2003). 이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청음능력을 활용한 하나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시각장애학생이 음악적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임안수, 2008), 모든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우수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음악성에 대하여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보여준 음악성, 즉, 높은 청음능력과 강한 음악적 표현 욕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음악지도법에서 많은 부분을 시사해준다. 높은 청음력을 활용한 음악지도법과 음악적 표현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줌으로써 음악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신체적 불편함을 경감시켜주고,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씬여림 표현지도 방법 개선으로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의 음악성을 더욱 계발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귀분, 신경림, 김소선, 유은광, 김남초, 박은숙, 김혜숙, 이경순, 김수영, 서연옥 외 공저 (2005).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호영 (2002). 동요프로그램이 시각 중복 장애학생의 수용 및 표현 언어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위 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삼호뮤직 (2002). **클래식음악용어사전**. 파주: 삼호뮤직.
- 석문주 (1996).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지도**. 서울: 풍납.
- 석문주 (2007). 음악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음악교육연구**, 32, 31-63.
- 세광음악출판사 (1993).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손성희 (2005). KMAT(Korean Music Aptitude Test)를 사용한 시각장애 중학생의 음악적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손지희 (2006). 시각장애학교 음악 특기적성교육 실태.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송진범 (2000). **음악교육학**. 서울: 학문사.
- 여민정 (2006). 음률활동이 시각 중복장애 유아의 음악 능력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이규옥 (2012). 시각중복장애유아 키우고 가르치기: 장점중심중재 관점에서 본 부모와 전문가의 경험과 그 의미. 박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이용숙, 김영천 (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과주: 교육과학사.
- 이용숙 (2002). *교육인류학*. 서울: 아카넷.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임안수 (2008). *시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채 민 (2009).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음악치료학회*, 7(1), 83-92.
- 허은혜 (2003). 바이올린 초급과정을 위한 스즈키 지도곡집의 연구분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하수영 (1993). 장애아동의 특수음악교육. *음악과 민족*, 6, 305-318.
- 한국음악용어연구소 (1992). 음악적 재능과 음악성. *음악과 민족*, 3, 315-319.
- Gordon, E. E. (1986). *Guiding your child musical development*. Chicago: GIA Publication.
- (1977). *Edwin E Gordern's Learning Sequence In Music: skill, contence, and Pattern*. Chicago: GIA Publication.
- Lundin, Robert W. (1967). *An Objective Psychology of Music*. NY: The Ronald Press Co.
- Schoen, M. (1940). *The psychology of music: a survey for teacher and musician*. Oxford, England: Ronald Press.
- McCracken, Grant David. (1988). *장시간 면담*. 이명선 외 공역(2005). 과주: 시그마프레스.
- Milier, L. K. (1989). *Musical savant: exceptional skill in the mentally retarded*.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Ockelford, A. (2005a). *Repetition in Music: Theoretical and metatheoretical perspectives*. Aldershot: Ashgate.
- Ockelford, A. (2008). *Music for Children young People with Complex Ne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ckelford, A., & Christina, M. (2010). *Exploring the musicality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retinopathy of premat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liversacks. (2010). *뮤직코필리아*. 알마.
- Schoen, Max. (1940). *The psychology of music: a survey for teacher and musician*. Oxford, England: Ronald Press.
- Van Mane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J. W. Creswell. (2010). *질적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J. L. Mursell. (1927). *Principles of musical education*. NY: The Macmillan company.
- Van Mane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erspective of Music Teacher on the Musicality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and
multiple Disabilities

Shin Yeon Seo

Doctorate Student at Daegu University

Kim Keon Hee

Professor at Daegu University

Lee Hae Gyun

Professor at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fter-school instrumental music teachers who work at the A Welfare Center regarding the musicality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and multiple disabilities. Using qualitative research, the study analyzes interviews given to five instrumental music teachers on the musicality of students with multiple disabilities regarding music instruction. Among the findings were the facts that (1) the teachers recognized that students with multiple disabilities and with visual impairment exhibited a special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music through musical interest and inquiry, and (2) the study participants provided educational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musicality. In conclusion,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appropriate education in keeping with the musical talents of students and of establishing a musical environment.

Key Words : visual Impairment and multiple disabilities, musicality, perspective of music teacher

논문 접수: 2012. 11. 05 심사 시작: 2012. 11. 13 게재 확정: 2012. 12. 20